

꿈 같은 검법남녀 대박 법의학관 남편 도움 컸죠



MBC 드라마 '검법남녀'의 시즌제 성공에 기여한 민지은 작가는 "법의학이라는 전문성이 강한 소재에 휴머니즘 에피소드의 조합을 좋아해주신 것 같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관인 남편의 경험도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8년 전부터 밑그림 그린 '검법남녀' 국과수 취재하다 우연히 남편 만나 시즌3요? 불러준다면 당장 써야죠

29일 종영한 MBC '검법남녀' 시즌2는 지상파 채널에서 보기 힘든 시즌제 드라마로 정착했다. 이미 지난해 시즌1 방송 후 속편 제작에 대한 시청자 요청이 쇄도한 드라마는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세밀하게 표현해낸 인물, 감정의 변화, 극적 장치 등으로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재영·정유미·오만석 등 전편의 주인공들도 흔쾌히 참여하면서 시즌 드라마의 안착에 기여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어우러지도록 만든 여느 또 다른 주역이 있다. 시즌1에 이어 시즌2에서도 총출동해 열개를 짰 민지은 작가(42)다. 마지막 회 대본 집필을 마치고 시청자 반응을 기다리고 있던 민 작가를 25일 서울 여의도 작업실에서 만났다. 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학관인 남편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웃었지만, 책상에는 3년 동안 드라마에 공을 들인 흔적으로 가득했다. 탁상달력에도 방영 날짜와 매회 집필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 "시즌3, 불러주면 당장 달려가요!"

민지은 작가는 드라마의 인기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평균 10%(닐슨코리아)에 가까운 시청률로 경쟁작 가운데 가장 높았다. 국과수를 배경으로 괴짜 법의학관(정재영)과 열혈 검사(정유미)가 공조해 사건을 해결하는 치밀하고 스텝 넘치는 이야기에 많은 시청자가 열광했다. 그에게 시즌2는 "꿈같은 일"이었고, 벌써 시즌3 제작을 바라는 시청자를 만날 때면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말했다.

민 작가가 3년 동안 준비해 내놓은 '검법남녀'는 사실 8년 전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밑그림이 그려졌다. 프리랜서로 드라마 '싸인'(2011)의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김은희 작가의 글을 접하고는 법의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 취재차 국과수를 자주 찾으면서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소개받아 2015년 결혼한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을까.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분을 인터뷰하고 국과수를 견학하는 등 사전조사를 철저히 했어요. 전문용어나 국과수에서만 쓰는 표현 등은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부검 장면이나 디테일한 표현도 남편이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줬죠."

두 편의 드라마를 집필하면서 자신이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확실하게 깨달았다. "저를 불러주는 곳이 있

는 한 계속 글을 쓰고 싶다"는 그는 "시즌3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며 "불러주시면 당장 달려가겠다"며 웃었다.

민 작가는 학창시절 꿈이었던 소설가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아 감회가 남다르다. 신춘문예를 준비하기 위해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한 그는 한창 진로에 고민하고 있던 4학년 때 영화사 명필름 심재명 대표의 강연에 감동해 곧장 "일주일 동안 이력서를 작성"해 취업했다. 이곳에서 9년간 영화 마케터로 일하며 배운 것을 홀로 펼쳐보고 싶은 마음에 홍보대행사를 차리기도 했다. 각종 영화를 홍보하며 영화사 JK 필름의 유제균 감독과 인연이 닿아 영화 '스파이' 시나리오를 각색하고, '히말라야'의 공동작가로 이름을 올리는 기회를 잡았다. 그러다 문득 "직접 판을 짜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작가라는 옛 꿈을 다시 끄집어냈다.

"영화 엔딩 크레디트에 마케터로는 이름이 나왔지만, 작가로는 '스파이'가 처음이었어요. 마케팅 관련 일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작가의 길로 이끌었죠.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제 주변에 사람이 있었어요. 심재명 대표님, 유제균 감독님, 첫 드라마인 '오래된 안녕' 김희원 PD님 그리고 '검법남녀' 노도철 PD님. 좋은 분들 덕에 이만큼 올 수 있었어요."

● "가족 이야기도 도전하고 싶어요"

민지은 작가는 서울 관악구의 자택과 작업실이 있는 여의도를 오가며 출퇴근한다. 아침마다 다섯 살 딸을 유치원 등원시키려 아무리 일이 늦게 끝나도 밤샘 작업은 하지 않는다. 작업실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많은 때는 "은 가족이 종종동해 아이를 봐 준다"는 그는 "딸이 태어나마자 일하는 엄마 모습을 봐서 그렇지 '쿨'한 편"이라며 미안함을 애둘러 표현했다.

"대본이 아무리 늦게 나와도 처박혀 있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 일하는 작가들에게 '죽을 거 같은 순간이 오지만, 어떻게 받아들일지나 차이'라고 말해요. 힘들지만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몸무게가 12kg 빠지긴 했지만요."

민 작가는 '검법남녀'를 통해 전문적인 법의학 소재에다 시청자 주변에 있을 법한 친숙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이야기를 쉽게 풀어가는 재능을 과시했다. 그는 "'막장' 소재를 써도 잘 쓰겠다는 댓글이 기억에 남는다"며 웃었다.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 작가와 동일 인물이나 묻기도 해요. 하하!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쓴 작가가 법의학 드라마를 썼으니 의아할 만도 하죠. 지금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실력을 쌓아 가족이야기도 쓰고 싶어요."

백승미 기자 bsm@donga.com



드라마 '검법남녀'는 피해자를 부검하는 괴짜 법의학자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검사 공조해 사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해결하는 이야기이다. 시즌1은 지난해 5월14일부터 7월17일까지 방영하며 최고 시청률 9.6%(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종영 직후 쏟아지는 시즌2 제작 요청에 1년 만인 올해 6월3일 시즌2를 시작했다. 시즌1·2에 모두 출연한 정재영(오른쪽)이 극의 중심을 잡아 정유미(왼쪽), 오만석 등과 함께 드라마 인기를 견인했다. 연출은 노도철 PD, 대본은 민지은 작가가 맡았다. 사진제공 | MBC

? 민지은 작가

▲1977년 5월28일생 ▲2001년 이화여대 국어국문학 졸업 ▲2001~2009년 명필름 마케터 ▲~2011년 영화·드라마 홍보대행사 '맥'·'마켓 인피니티' 대표 ▲2013년 영화 '스파이' 각색 ▲2014년 영화 '히말라야' 공동 작가 ▲2014년 MBC 단막극 '오래된 안녕'으로 드라마 첫 집필 ▲2015년 SBS 단막극 '살연화', 2016년 tvN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 ▲2018년 MBC '검법남녀' 시즌1 대본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렴함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오늘 50대 한정 할인판매!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형,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작동,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 사용
청력에 맞추어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어폰 연결하면 양쪽 귀로 사용 가능
(기본제공)

이런 때 사용하세요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목소리가 필요할 때
▶ TV 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을 때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을 때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을 때

최신제품
80 길이: 5cm, 무게: 7g
1회 충전시 24시간 연속사용!
배터리 전량 확인가능 내장
하울링 방지기능 내장

3000 길이: 5cm, 무게: 7g
입출력 100% 향상
음향 100% 향상

★ 이번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택배로 받으신 분들중
3일이 경과하신분.

서울시당지사: 02-6085-4414
무로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구입문의: 1661-9878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쌤모아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하는 ~
저 사람은 왜 여성이 주변에 차고 남칠까?

이성(理性)을 유혹하는 마법의 페로몬향수

상대의 영혼까지 훔칠 수 있을까?
페로몬- 감출 수 없는 유혹의 향기...

애인이 필요하세요? 이성 친구가 필요하세요?
남성과 여성은 상대를 추구할때 페로몬이라는 특별한 호르몬을 분비하여 관심을 끌고 **스취가 향기에도 되돌아 보게 됩니다.**
성공을 위해 용기내어 다가가세요~ 연인에게 선물하세요!!

상대가 호감을 느끼게 할 자리에 필요한 "향수" 소개팅이나 데이트 할때, 잠자리에서도 특효를 보는 것은 페로몬 향수의 효과입니다. (여성용도 있습니다)

NAVER에 쌤모아 검색
서울시당지사: 02-6085-4414
구입문의: 1661-9878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입금계좌: 농협 351-1015-0904-23 쌤모아

▶ 용량: 1박스 (30ml x 2명 / 스프레이, 러서리) ▶ 정성분: 에탄올, 향료(U.S.A), 정제수 ▶ 공급원: 주미화학력
▶ 1세트 (30ml x 2명 대용량) 할인판매가: 96,000원

패션의 끝은 어디인가?
- 발렌티노루디 클래식 워치
초고품질/이탈리안 디자인/오늘 100대 한정판매!!!

본 제품은 발렌티노루디의 정품입니다

명품디자인의 클래식 콤비워치

무브먼트: 일본(Japan)시용 *전면 미세칼 글라스 사용/날짜 눈보기 렌즈
*3기압 생활방수처리 *시각표시: 아랍 리인스트12개
*사이즈: 지름35mm, 두께 10mm, 중량 80g, 본 제품은 단품으로 제공됩니다

260,000원 → 12만 8000원

단순, 절제미학의 클래식 워치

무브먼트: 일본(Japan)시용/별도초침
*전면 미세칼글라스 사용 *3기압 생활방수처리
*사이즈: 지름40mm, 두께 11mm, 중량 41g
본 제품은 시계, 액세서리, 가죽시계줄, 가죽시계줄, 키홀드, 명함지갑이 세트로 판매됩니다.

300,000원 → 14만 9000원

구입문의: 1661-1224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무로체험 오시는 길: 2호선 서울대 입구역 8번출구 원당초교 뒤편
NAVER에 쌤모아 검색
*AS/이: 물품구입 후 6개월 이내 제품하자 불만요청 시 제품교환(선불배송) 서울시당지사: 02-6085-4414